

중국 기혼여성 유학생의 박사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학업과 장거리 양육경험에 관하여 -

안기 · 제혜금 · 소혜진

(전주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연구방법
 - 2.1. 연구참여자
 - 2.2. 자료수집
 - 2.3. 자료분석
3. 연구결과 및 분석
 - 3.1. 박사과정 학업경험
 - 3.2. 장거리 양육 경험
 - 3.3. 가족들의 지지
4. 결론 및 제언

<Abstract>

An, qi, Zhu, hui-qin, So, hye-jin. 2021. 1. 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arried Chinese Female Doctoral Students' Academic Experienc and Long-Distance Parenting Challenge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51-7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married female Chines doctoral students in South

Korea who are engaged in long-distance parenting and suffering from academic stress. The first autho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Chinese doctoral students in South Korea and explored their experiences of doctoral study and long distance parenting. The researchers us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o analyze verbatim interview transcriptions.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ree themes and eight categories were emerged: Experiences of studying in Korea (including the motivation to study in Korea, positive and stressful experiences, and the release of stress), long-distance parenting experiences (including children's negative experiences, concerns about relationships with children, dual stresses of parenting, and mother as role model), and family suppor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female Chinese doctoral students who need to parent a child left behind in Chin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a resource to create a support system for them. (Jeonju University)

[Key words] Chinese students, Parenting stress, academic stress, married women, phenomenology

1. 서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 및 관계가 증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 교류도 증가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 유학생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유학국 2위로 올라섰다(오마이뉴스 2007). 교육부의 2020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6년에 1만명

을 돌파하였고 2016년에는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165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이 52.4%를 차지한다(이현정 2020).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박미숙·김영순·홍유나 2014)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유학생의 특징은 대학·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약간 감소세를 보인 반면,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수자는 연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취업시장 내 구직경쟁이 과열되면서 대학원 입학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중국 대학원 정원은 한정되고 입학지원 횟수조차 제한이 되어 있어 중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원 입학수요가 한국으로 흡수되고 있다(매일경제 2020.11.03). 이처럼 유학목적이 다양화되면서 정부는 한국유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위해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유학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법무부 외국인 통계보고에 따르면 2019년 9월 재한 중국 박사과정 유학생 수가 4,726명이며, 그 중 여성이 2,707명으로 전체 박사과정 학생의 57.3%를 차지한다(법무부 2019). 박사과정 중에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두고 왔기에 일반 유학생들과 달리 남다른 고민과 열정이 있다.

영아기나 유아기의 아이들은 특히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절대적 필요하며 아이의 정서발달과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을 양육스트레스라고 한다(Abidin 1990).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사소한 생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부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지적으로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압박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정재원·임지향·김예빈 2019). 보통 양육스트레스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간과되지만 고큰력 여성들은 누적되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심리적 만족감이 저하되고 급기야는 아이,

남편 등 주변 가족, 친구 및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윤주·김진숙 2012; 박형운·김태은 2020; 양윤정 2016).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혼여성 경우 양육 외에도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등 다중역할로 인해 여성들에게 역할의 갈등과 심리적 압박감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학교 부적응과 학업을 중단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진영·김누리 2009, 육혜숙 2016). 특히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체력, 기억력, 이해력 저하 등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孙国锋 2013; 孙卉·张田 2020).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의 수행 과정에서 엄마로서의 책임과 의무, 학업의 실현과 완성에 직면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강명자 외 등 2003).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반해 서현·윤경아·김윤주(2019)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5명의 기혼 직장여성의 박사과정 수행 경험에 관한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인내해가며 나아가 그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융합해 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긍정적인 입장도 제기되었다.

박사과정의 유학생은 본국의 대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학위를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 의 소통, 전공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외에 언어문제, 음식문제, 의료문제, 재정문제, 한국인과의 교우관계, 종교, 차별대우 등 유학생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유학생들이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으며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학업을 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국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방기연 2013; 박미숙·이미정 2015; 이봉재·방수정 2019; 서현·윤경아·김윤주 2019). 또한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과 한국문화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경상·배상률·이창호

2018; 유채영·이주경 2017; 김상옥·윤지원 2017; 김선영 2014).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학업수행을 위한 이중적인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학업을 하는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수행에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으며,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박사과정 중 겪고 있는 학업과 장거리 양육 경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업수행 과정에 중국 유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학업 중 겪고 있는 장거리 양육 경험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그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제한 중국 기혼여성의 박사과정 중 학업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제한 중국 기혼여성의 박사과정 중 장거리 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중국 여성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학업과 양육에 대해 탐색하고자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자는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3명의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전라북도 A시에 소재한 대학 박사과정 예술심리치료 전

공에 재학 중이며 중국에 자녀들을 두고 온 상태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먼저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후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동의서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설명한 뒤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직업	자녀	양육지원
A	33	박사과정 3학기	대학교수	딸 6세	남편, 언니, 친정부모
B	31	박사과정 3학기	프리랜서	딸 5세, 아들 2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C	33	박사과정 2학기	대학교수	아들 4세, 2세	친정 부모

2.2. 자료수집

먼저 본 연구는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jjIRB-201109-HR-2020-1104)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반 구조화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경험하는 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미리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각 참여자의 집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약 90~120분이었다. 연구자는 모든 인터뷰를 녹음한 뒤 직접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정보, 학업과 양육에 대한 경험 및 스트레스, 필요한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2.3. 자료분석

연구자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업경험과 장거리 양육경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 연구는 개인의 생활 경험을 탐색하며 그들이 어떻게 현상의 주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공동사물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현상학적 결론은 개인 경험의 본질을 서술하며,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포함한다(Creswell & Poth 2018).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Creswell(2013)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Moustakas(1994)의 자료 분석절차를 단순화하여 더욱 실용적인 방법이 되도록 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도록 한다. 먼저 연구자는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축어록을 여러 번 읽은 뒤 필요한 부분은 인터뷰 녹취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인터뷰 대상자의 말투와 성조 등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인터뷰자료분석 과정에서 자료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ATLAS.ti 9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하여 묘사하기, 2) 인터뷰 자료 여러 차례 읽고 편견 없이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하여 목록 작성하기, 3) 의미 있는 진술을 코딩한 뒤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묶기 4) 코딩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동료보고 진행하기, 5) 축어록과 다시 비교하며 불필요한 코딩은 제거하고 의미 있는 진술 다시 확인하기, 6) 반복되는 공통경험을 묶은 위 범주와 주제를 도출하기, 7) 참여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기, 8) 참여자들의 진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기.

<표 2 연구결과 주제 및 범주>

주제	범주	의미 있는 진술
한국에서의 학업경험	한국유학동기	남들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 학위가 없어 미래에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학업을 통한 긍정적 경험	새로운 강의를 많이 배우고 전공과목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주변의 학문적 환경이 자신의 시야를 넓혔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배워요.
	학업스트레스 경험	침대에 누워 있지만 늘 공부에 부담이 되고 움직이기 싫고 기운이 없어요.
	학업 스트레스 해소경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장거리 양육경험	아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딸은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딸은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척해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	엄마가 박사공부를 선택하면서 자신과 동생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이예요.
	자녀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	개학하면 한국으로 가야 하니 적어도 방학에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하고 양가 부모님들을 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롤 모델로서의 엄마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족들의 지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한국에도 못 왔을 거예요.

모든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자료분석 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 박사과정생과 동료보고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모든 자료는 한국에 24년

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인 교수가 번역하였다. 이후 다수의 질적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가 다시 한번 자료분석과 주제도출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제와 범주에 대하여 다수의 질적연구를 게재한 학교 교수에게 의뢰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총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진술은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분석

3.1. 박사과정 학업경험

첫 번째 주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박사과정 학업 경험에 관한 것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동기, 학업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과 스트레스 및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3.1.1. 한국 유학 동기

참여자 A, B, C 3명 모두 유학 동기에 대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자 A와 C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자 A의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술적 사고를 넓힌 뒤 새로운 전공과 기존 전공을 융합하기 위해 유학을 왔다. 더 자세히는 학술적으로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 “학문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참여자 A씨는 이번 유학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오기가 어렵거나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기가 적절하여 유학을 오

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B와 C는 박사학위 취득의 목적이 자녀 양육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참여자 B는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으나 박사과정을 통한 “자기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 참여자 B는 “엄마로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기의 능력을 향상되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거예요” 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는 박사과정을 통하여 실력을 향상하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직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 C는 박사학위를 꼭 취득해야 한다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참여자 C는 중국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요구하며 “남들은 학위를 갖고 있는데 나는 학위가 없어 미래에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예요” 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C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지금 아이가 어려서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에 아이의 학교 수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건강하셔서 돌봐줄 여력도 있으니 자신에게 적절한 유학 시기인 것 같습니다.”

3.1.2. 학업을 통한 긍정적 경험

참여자들은 학업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탐구 및 엄마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명확한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넓은 시야와 풍부한 지식 확보 등이 가능하며 더불어 자기 인식과 자기탐구로 연결되는 등 긍정적인 경험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자 A와 B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세우게 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 A는 학부생일 때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새로운 강의를 많이 배우고 전공 과목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주변의 학문적 환경이 자신의 시야를 넓혔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배워요. [...] 교수님들의 전문성이 뛰어나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는 학부생일 때는 수동적이었으나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자기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변하여 스스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박사과정 중에는 사회적으로 다른 요인들과 얽히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학습 목표가 명확해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참여자 C씨는 박사과정 중에 모두 함께 하는 학업분위기가 너무 좋으며 특히 수업시간에 다 함께 토론하는 경험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사고 구조를 사고 구조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박사학위 과정 중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탐구의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집에서는 엄마의 역할 뿐이었는데 한국에 오면서 점점 엄마의 역할을 내려놓고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 그동안 일을 대처할 때 쉽게 불평했고 다른 사람을 탓할 뿐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일이 닦쳤을 때 자신에 대해 분석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는 박사공부를 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극복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그것을 즉시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고 말하며 박사과정의 공부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

확히 인식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를 “자기성장”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러한 극복의 과정을 중국대학에 복귀한 뒤 학생들에게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1.3. 학업 스트레스 경험

참여자들은 학업과정 중 생각대로 되지 않는 좌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언어적인 스트레스, 전공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도 교수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 A, B, C는 모두 결혼과 출산 이후 체력 저하로 인해 겪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크다고 하였다. 먼저 참여자 A는 “가끔은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요. [...] 가끔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체력상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 침대에 누워 있지만 늘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되고 움직이기 싫고 기운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참여자 B씨는 “대학에 다닐 때는 에너지가 넘쳐 밤샘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밤샘은 할 수도 없고, 교수님이 수업 중에 말씀하신 것들도 여러 번 복습해야 해요.” 참여자 C 또한 출산 전과는 다른 체력 특히 “한번 임신하면 3년 바보가 된다”는 중국속담처럼 자신의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고 오래 책상에 앉아있으면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한국어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고 밝혔다. 참여자 A씨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언어적 문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는 향상되었지만 학업을 위한 언어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B씨는 “한국에 대한 예의범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교수님에게 사용해야 할 존댓말이나 예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해요. 표현을 잘못해서 교수님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스러워요”라고

말했다. 참여자 C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을 만나기도 어려워 한국어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요. [...] 이러한 언어장벽은 더 나아가 지도교수와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지도교수와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메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라고 걱정했다. 특히 참여자 C는 지도교수와 논문에 대해 소통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에 대하여 참여자 A는 학교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수들이 자신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C는 학교에서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면 언어에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교수님 말고는 한국친구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참여자들은 박사과정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접해보지 못하거나 심층적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A 씨는 "새로운 분야에 관해 공부하고 있어 기초지식이 튼튼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하니 공부가 너무 벅차요. 나는 아직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박사 수준까지 향상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는 박사로서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것 같아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박사논문 작성이 특히 어려워 처음부터 조금씩 연구하고, 조금씩 작성하고, 모르면 물어가며, 아직 완전히 파악할 단계가 아니라 탐구하고 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3.1.4. 학업 스트레스 해소 경험

참여자 A, B, C는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학업동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거나 자기성찰을 하고 외적으로는 운동이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참여자 A와 C는 각각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먼저 참여자 A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편안하게 직면해요. 지도 교수님과 서로 타협하고 견디고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교수님도 저랑 대화중에 새로운 관점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남들이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사실 언어도 내가 배워야 하고, 남들이 계속 번역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C는 “나는 이미 아이와의 시간을 포기하고 공부하러 왔어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가야 가족에 미안한 마음이 적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참여자 C는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야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 행동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격려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성찰하는 것 외에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B는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공감되었다며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공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생각이 들며, 나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유학을 나온 엄마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참여자 C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이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한다고 하였다. 이 친구 또한 직장 때문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 타지에

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3.2. 장거리 양육 경험

두 번째 주제는 중국에 아이를 두고 온 참여자들이 장거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다. 이 주제는 장거리 양육으로 인한 아이에 대한 영향, 자신에 대한 영향, 양육스트레스 해소경험으로 구성되어있다.

3.2.1. 아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

참여자 A, B, C는 모두 자신들이 집을 떠나 장기간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A는 자신의 자녀가 엄마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는 친구와의 교류에서 지장을 준다고 말하였다. 또한 “딸은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딸은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척해요. 내가 [한국으로] 간 첫날부터 엄마 며칠 자면 오는지 물어요. 가끔 아이는 엄마가 공부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존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영상통화가 가능하지만 진정한 신체적 친밀감은 영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어요”고 말했다.

참여자 B는 참여자 A와 비슷하게 자신의 자녀가 좌절감과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두 딸 중 큰딸은 자신이 곁에 없어 용기가 부족하고 막내아들은 엄마가 이름일 뿐 엄마의 존재를 모르며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두 딸은 친할머니 집에 머물고 아들은 외할머니 집에서 양육되고 있어서 자녀들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형성되었다.

3.2.2.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

모든 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A는 주로 학업에 시간을 쏟으면 아이와의 교감이 어려워지고, 박사공부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자신의 정서상태가 좋지 않아 부모자식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또한 A는 남편이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있지만 얼마만큼 세심하지 않고 인내력이 없어서 아이에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자책하였다.

참여자 B는 박사과정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이와 제 때에 영상통화를 하지 못할 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C의 남편은 직업상 너무 바빠 때로는 야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적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옆에 없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 너무 걱정이며 아이가 자신을 '1순위'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낀다. 참여자 C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로서 자신의 부재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주는 안정감은 대체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서 “엄마가 박사공부를 선택하면서 자신과 동생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라고 말했다.

3.2.3. 자녀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은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참여자 A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커서 이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몰입이 저하

되어 결국에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참여자 B 또한 온통 아이 생각뿐이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들 곁에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방학동안 중국에 가면 장기간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다고 하였다. 방학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하여서도 이러한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데 애쓰다고 밝혔다. 참여자 A와 B는 오랜 기간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해 방학 때 집에 가면 아이의 기대가 높아져 혼신의 힘을 다하여 놀아 줘야겠다고 생각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자 A는 방학이지만 계속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와 24시간 함께 할 수 없는데 대해 아이는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짜증을 내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참여자 B는 “집에 막 돌아가면 적응이 잘 안 돼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익숙해져 있다가 여럿이 함께 있으니 적응이 안돼요, 아이가 계속 붙어 있으니 익숙하지 않아요.” 이와 더불어 방학 동안 혼자 아이 둘을 돌봐야 하니 양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쉬게 하시기 위하여 도움을 거절했다고 말하였다.

3.2.4. 롤 모델로서의 엄마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부재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엄마가 학업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A는 스스로 심리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며 지금은 자녀와 떨어져 있어 힘들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좋은 모습이 미래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유사하게 참여자 B는 엄마가 아이에게 “롤 모델”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

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부지런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참여자 C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믿으며 지금 당장은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이의 인생 전체 성장 경험에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3. 가족들의 지지

세 번째 주제에서는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서 받은 지원에 관한 것이다. 모든 참여자들은 학업을 위해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 A는 남편뿐 아니라 친정 부모와 언니, 형부가 도와준다. 가족들은 이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임무”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점점 동지애를 형성했다. 참여자 A는 “집안일은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딸이 1학년이 입학했지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은 제가 이곳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걱정해요” 라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B의 경우는 첫째 딸은 현재 시어머니가 주로 보살피고 둘째는 친정엄마가 보살피고 있고 있다. 처음에 부모는 유학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두 아이를 집에서 잘 보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 B의 남편은 그의 유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과 자녀양육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 C는 임신했을 때부터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지금까지 두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며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 큰 위안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둘째는 업두도 못 내고 한국에도 못 왔을 거예요” 라고 말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박사과정 중 겪고 있는 학업과 장거리 양육의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유학 온 중국 기혼여성 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이들에게 박사과정 중 학업과 장거리 양육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혼여성 유학생들은 학업에 있어 우선, 유학동기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학을 왔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도 아직 어려 유학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학습목표가 명확하고 넓은 시야와 풍부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어 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언어, 전공지식의 부족, 문화차이로 인한 교수와의 관계, 외국생활로 생각대로 안되는 좌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넷째, 외국생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유학동기에 다시 생각하고, 자기성찰, 운동, 가족·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장거리 양육에서는 첫째, 한국생활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가장 우려를 한다. 둘째, 직접 양육을 하지 못하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불안해한다. 셋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방학에 중국에 가면 자녀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해 공부시간이 부족하다. 넷째,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노력한다.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엄마의 노력하는 모습이 미래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기혼여성이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서 물질적,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기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적응 및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하여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여 자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느끼게 하였다. 이렇듯 자녀를 둔 기혼 중국 유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장거리 자녀양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이 구성한다면 확고한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 기혼여성 유학생들이 유학생 생활에서 양육에 대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 유학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유학생 생활에서 오는 난관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다만, 이 연구의 참여자 수가 적고, 모 대학의 중국 박사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향후 보다 많은 박사과정생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일반화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명자 · 김영혜 · 조영술 · 이숙련 · 김기련 · 김영선 · 김순구(2003). 간호전문직에 종사하는 대상자의 간호학 박사과정 체험, <질적연구>, 4(1), 질적연구학회. 27-40.
- 김상옥 · 윤지원(2017). 중국의 한국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중국연구, 74,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연구소. 205-222.
- 김선영(2014). 중국 유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학업수행 측면에서의 문화적응과 만족도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 32(1), 한국교육행정학회. 131-157.
- 매일경제(2020.11.03). 코스펙 쌓으러 왔어요, 중국인 유학생 석박사 늘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29101/>
-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4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09-140.
- 박미숙·이미정(2015). 대학원 과정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학업동기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747-770.
- 박진영·김누리(2009). 성인대학생용 학업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5(3), 안암교육학회. 215-239.
- 박형윤·김태은(2020). 양육스트레스를 겪는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7(4), 한국미술치료학회. 671-697.
- 방기연(2013). 기혼여성이 사이버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하면서 겪는 경험, 한국교육, 40(3), 한국교육개발원. 71-96.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2019). <http://www.moj.go.kr>.
- 서현·윤경아·김윤주(2019). 기혼 중년 여성의 박사 과정 수행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보육학회지, 19(2), 한국보육학회. 35-55.
- 양윤정(2016). 우울 증세를 보이는 기혼여성의 학습된 무기력과 우울감소를 위한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6(1),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61-84.
- 오마이뉴스, 물려오는 중국 대학생들 "한국에서 공부하자", 2007.11.4. <https://news.v.daum.net/v/20071104181811263?f=0>
- 유채영·이주경(2017).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8(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1-80.

- 육혜숙(2016). ‘늦깎이’ 성인학습자의 박사과정 학습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상·배상률·이창호(2018).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사회 생활적응 및 한국사회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5(5), 한국청소년학회. 231-264.
- 이봉재·박수정(2019). 대학원 생활 속 행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직 대학원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99-226.
- 이윤주·김진숙(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한국상담학회. 2229-2249.
- 이현정(2020.10.05.). 202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http://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
- 정재원·임지향·김예빈(2019). 양육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대상관계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9(1),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101-130.
- 孙国锋(2013). 女性博士研究生成长经历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孙卉·张田(2020). 女性博士研究生的性别压力及其疏解, 研究生教育研究, 57(3), 中国学位与研究生教育学会. 45-52.
-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Creswell, J. W., & Poth, C. N.(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Fourth*

Edition. SAGE Publications.

Moustakas, C.(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필자 소개

성 명 : 안기
소 속 : 전주대학교 박사과정, Xin Zhou Teachers University, China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우편번호]55060
전화번호 : 010-2764-9666
전자우편 : 382937201@qq.com

성 명 : 제혜금
소 속 :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우편번호]55069
전화번호 : 063-220-3228
전자우편 : huiqin1997@hanmail.net

성 명 : 소혜진
소 속 :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우편번호]55069
전화번호 : 063-220-3099
전자우편 : hs6363@gmail.com

투고일: 2021.1. 17 / 심사일: 2021. 1. 20 / 심사완료일: 2021. 2. 18